전주시, 일본 수출규제 대응 총력

시장을 단장으로 한 비상대책반 가동 애로기업 상시지원 체계 마련
경영안정자금 한도액 증액 · 기업 애로지원 정보제공창구 운영 등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 조치와 관련해 전주시가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우선, 시는 김승수 전주시장을 단장으로 구청장, 국·소장, 출연기관장 등으로 구성된 '일본 수출규제 대응 비상대책단'을 가동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산업계, 유관기관간 대응상황을 상시점검하고 애로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는 또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애로기업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한도액을 기존 3억원보다 확대 지원하고 융자금 상환기간도 1년간 유예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다음 달 열리는 전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동향과 기업유의사항 등 주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탄소·수소의 핵심소재·부품 원천기술 개발에 따른 장비 국산화 국책사업 발굴과 동시에 국가사업 추진 등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지방세의 경우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6개월간 징수유예, 체납처분 1년 범위에서 유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등을 지원하고 피해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지원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특히 수출규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시에는 긴급 추경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대일본 국제교류와 민간교류사업을 중단키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초 일본이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조치 이후 지역 내 일본의 생산 소재를 사용하는 기업 실태를 파악하고 애로기업, 중소기업연합회와의 간담회, 비상대책회의 개최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자세와 행동이 중요하다"며, "지역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응방안을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물론 대일본 국제교류를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지하공영주차장 공기질 '이상무'

전주시설공단(이사장 전성환)이 운영하고 있는 지하 공영주차장들이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서신동 공영주차장과 서부신시가지 홍산라이브 공영주차장, 전주비보이 공영주차장 등 지하주차장 3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을 측정한 결과 '양호'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공단은 이들 주차장을 대상으로 6월15일부터 한 달 간 미세먼지(PM10), 이산화탄소(CO2), 폼알데하이드(HCHO), 일산화탄소(CO), 라돈(Rn), 이산화질소(NO2),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등 7개 항목에 대한 실내 공기질을 측정했다.

그 결과 7개 항목 모두 관련법령에서 정한 유지권고 기준이내로 측정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인 실내주차장은 실내 공기질 유지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주시는 오는 9월 27일까지 54일간 주민 등록된 거주 불명자와 고령자의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대상자는 △전체 거주불명자 △복지부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으로, 통장과 담당 공무원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실제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을 방문 조사하게 된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확인될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로 전입하도록 안내하고, 기간 내 미신고자는 거주불명등록으로 직권조치 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허위신고자나 이중신고자를 적발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거주불명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의 절반의 금액을 경감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송효철 기자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교육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지난해 6·13 지방선거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교육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A(47)씨의 항소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5일 밝혔다.

/강석훈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칠판에 적히는 수능 D-day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D-100일을 하루 앞둔 5일 전주 호남제일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학교를 찾아 자율학습을 하며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전주 풍남문 전면 성벽에 균열 발생

시, 문화재청에 보고 의견 따라 후속조치 방침
용역결과 심각한 문제 보고될 경우 안전진단

전주의 유일한 관문인 풍남문 전면 성벽에 균열 및 이탈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문화재청에 풍남문 전면 성곽 면석 균열 및 배부름 현상에 따른 보고를 했으며 문화재청의 의견에 따른 후속조치를 할 방침이다.

전주시에 따르면, 그간 풍남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어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자문을 요청하고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풍남문은 성들의 내부 정착길이가 확보되어 있고 뒷채움석도 비교적 잘 맞닿아 급격한 이탈과 붕괴의 위험성은 낮지만 손상부주변에 접근 제한 펜스 및 안내문을 설치해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성돌 이탈의 원인 분석 및 보존 방안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하고 추가 변형을 고려, 임시 보강조치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시는 용역결과 성벽의 구조적인 문제나 붕괴위험 등 심각한 문제가 보고될 경우 성곽위 단청과 기와 등을 해체하고 성벽을 다시 쌓는 최악의 상황도 염두해두고 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풍남문 해체 및 성벽을 다시 쌓게 된다면 약 45억원의 예산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효철 기자

폐암 조기 발견·치료 가능해진다

전주시보건소, 이달부터 폐암검진 추가
만 54~74세 사이 흡연자 대상으로 실시

국가 암 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이 추가됐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그간 위암과 간암, 유방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등 5대 암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국가 암검진사업에 이달부터 폐암검진이 추가됐다고 5일 밝혔다.

추가된 폐암검진의 대상자는 암 검진 실시기준에 따라 만54세부터 74세 중 30년간 하루 1갑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이다.

검진은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방식으로 실시되며, 2년 주기로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가 검진대상이다.

폐암검진은 건강보험공단이 발송한 폐암검진표와 신분증을 가지고 검진기관으로 방문하면 약 11만원의 검진료 중 10%인 본인부담금(약 1만원)만 내고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소득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

폐암검진기관은 종합병원급 이상 일반검진기관으로, 전주지역의 경우 △대자인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전주병원 △예수병원 등 4개 기관이다.

또한 폐암검진 후에는 검사결과를 토대로 필요할 경우 검진기관의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금연상담 등 사후 상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우리나라 암 사망 중 1위인 폐암은 생존율이 췌장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암종으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질환"이라며, "국가 암 검진에 폐암이 추가됨을 적극 홍보해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 암 검진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정신건강팀(063-281-6356)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우수 전공의 포상식

예수병원(병원장 김철승)은 환자경험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전공의 사기 진작을 위해 올해부터 우수 전공의 포상을 하기로 하고 우수전공의를 선정해 5일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철승 병원장은 2019년 상반기 전공의 수련 과정을 통해 근면과 성실로 타의 모범이 된 첫 번째로 수상자로 선정된 우수 전공의 상 수상자 5명과 우수 근무과 1개 과에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2019년 상반기 우수 전공의 포상을 위해 원내 각 부서에 우수 전공의 추천을 의뢰해 그 중에서 최다 추천받은 전공의를 선정했다.

포상을 받는 전공의는 ▲모범 전공의 상: 산부인과 정태원, 재활의학과 최준현, 정형외과 김민우▲근태 전공의 상: 재활의학과 조원재 ▲논문학술 전공의 상: 정신건강의학과 김신일 전공의가 선정되어 각각 수상했고 우수 근무과(전공의 특별법 준수 및 수련규칙 이행 준수 과) 상에는 응급의학과가 선정되어 김호권 주임과장이 수상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시원한 수제맥주와 신나는 음악을 동시에

16일부터 이틀간 개최
영스타가요열전 · EDM파티
미스트롯 스타킹 등 펼쳐

매년 여름 시원한 수제맥주와 함께 하는 '2019 전주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이 오는 8월 16일, 17일 양일간 전주 모래내길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방송인 MC 김현수와 가수 한유빈의 진행으로 유명연예인들이 대거 참여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절정을 치닫는 여름더위를 날려버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모래내시장치맥&가맥페스티벌은 전통시장을 알리고 활성화 하기 위한 전통을 잇는 지역축제로 전 국민이 좋아하는 치킨과 수제맥주를테마로 기획되어 2016년 처음 시작,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축제는 16일 오후 6시 모래내시장 특설무대에서 펼쳐지는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다음날 토요일 자정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는 무대가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날인 16일 공개방송으로 펼쳐지는 영스타가요열전에서는 걸그룹 아이러브를 비롯해 가수 홍시, 조수진, 강유진이 출연해 성대하게 개막축하쇼를 펼친다.

이어, 궁따리사바라의 '클론의 구준엽 DJ Koo'가 진행하는 신나는 EDM파티로 축제의 절정을 치닫고, 전주지역 전문쇼밴드 원더풀월드가 강력한 락음악으로 열기를 내뿜으며 피날레를 장식한다.

또한, 둘째날 17일에는 국내 최정상 '가수 박현빈의 힐링콘서트'로 가수 김종석, 진정아, 이진, 조승우, 도연 등이 함께 출연해 축제의 하이라이트를 밝힌다.

특히, 박현빈의 힐링콘서트에 앞서 펼쳐지는 '미스&미스터트롯 스타킹'은 가수를 꿈꾸는 전국에서 참가하는 아마추어 가수들의 트롯경연 가요제로써, 오는 10일 예선통과를 거쳐, 결선으로 우승상금 백만원을 놓고 17일 격돌함으로써 축제의 대미를 장식한다.

한편, 이번 페스티벌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최로 전주모래내시장상인회와 모래내시장치맥가맥페스티벌 추진위원회의 주관으로 열린다. /송효철 기자

입주 시작 효천지구 도로 속속 개통 예정

내부도로 · 동측대로 임시 개통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지구 주변도로가 속속 개통될 예정이어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게 됐다.

전주시는 효천 우미1차아파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된 효천지구 주변 교통 분산 및 정체해소를 위해 내부도로와 동측대로를 임시 개통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교통량이 많은 우미1·2차 아파트간 내부도로와 세내교부터 우림교를 연결하는 동측대로를 5일과 12일 각각 순차적으로 개통,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천지구 아파트단지 내부 잔여 노선 등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의 교통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보완작업이 완료되는 오는 8월말 전면개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세내교~중인삼거리~중인나들목(국도21호선)까지 연장 3.4km의 왕복 2차로를 주변 아파트단지 조성 등 도시개발로 인한 교통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오는 2021년까지 왕복 4차로(폭 20~25m)로 확장을 위해 지난달부터 토지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다.

한편, 전주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효자동2가과 삼천3동 일원의 67만3000㎡의 면적에 총 4600여 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효천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지난 2012년 착공해 지난달 완공됐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병원, 폭염 인한 온열질환 주의 당부

"고령자 등 야외활동 자제해야"

전국적으로 폭염특보 발효 중인 가운데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이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5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무더위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지난 한 주 동안 온열질환이 발병한 3명의 환자가 현재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특히, 치료를 받고 있는 두 명의 온열질환 환자는 93세와 77세의 고령자로 집안에서 의식저하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긴급이송 됐으며 열사병 진단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집계한 온열질환 감시체계 발생현황에는 지난 4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85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온열질환은 무더위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이 대표적인 온열질환에 해당한다.

주로 햇볕이 뜨거운 낮 시간에 야외에서 발생하며 열로 인해 호흡이 빨라지는 등 전조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의 부종(열부종), 일시적인 의식소실과 어지러움(열실신), 근육경련(주로 장딴지 근육, 열경련)이 발생할 수 있다.

점차 진행하면 기력저하나 피로감, 두통이나 어지러움, 구역감이나 구토 등의 전신증상이 동반되는 열탈진이 발생한다.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40℃ 이상의 고열과 의식변화가 동반되는 열사병으로 진행할 수 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여름 중 가장 더운 시간대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한다. 부득이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 양산을 준비하고 수시로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수분을 충분히 보충해줘야 한다.

또한, 몸에 이상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시원한 공간을 찾아 반드시 휴식을 취하도록 한다.

온열질환이 발생 시 의식이 없는 경우는 119 구급대에 신고한 뒤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켜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주며 119가 도착하면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해 옷을 벗기고 몸을 시원하게 해준 뒤 수분섭취를 한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119 구급대에 신고한다.

응급의학과 윤재철 교수는 "4세 미만 어린이, 7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 및 알코올 질환자들은 폭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뜨거운 한낮에 혼자 있게 하지 말고 야외활동을 가능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태 기자